

사회

여성 아르바이트 性 수난시대

업주 우월적 지위 성희롱·추행 빈발 피해자 우울증·자살충동... 치료 받아

#1 광주 소재 한 대학교에 다니던 최모(여·21)씨는 지난해 말 겨울 방학을 맞아 동국의 한 외국어학원에서 상담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한 영어강사(32)가 친밀감을 표시하며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만나줄 것을 강요했고, 강사의 협박에 급기야 반강제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최씨는 곧장 만남을 중단했지만 강사는 흥기를 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2 점점고시 준비생 김모(17)양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광주시 남구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48)에게 당한 처움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김양은 시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지만 집과 가깝고 사장의 인상이 좋아보여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장은 손님이 없으면 김양에게 “남자 친구는 있느냐? 남자 친구랑 자 봤느냐?” 등의 말을 건넸다. 김양은 상습적인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사장을 광주노동청에 고소했다.

#3 박모(여·30)씨는 올 초 이혼하면서 생활이 막막해져 집앞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면 사장(47)

이 종종 야한 농담을 건넸다. 또 차량 내부를 세차하면서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무릎을 주무르기도 했다. 다른 직원들까지 사장의 행동을 따라 했다.

충남 서산의 피자 가게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 사장에게 성폭행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광주 지역 여성 알바생과 비정규직도 업주들의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알바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네거나 신체 부위를 더듬어 피해자들을 희롱했다.

23일 광주지역 청소년상담센터나 여성민우회, 청소년인권노동네트워크 등에는 ‘사장이 야한 농담을 한다’ ‘동료 알바생이 내 몸을 만진다’ 등의 고민을 토로하며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대형 사업장보다는 영세업소 등에 집중되고 있다고 상담사들은 입을 모았다.

직원의 숫자가 적은 경우 업주와 알바생이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업주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알바비조차 제때 주지 않아 임금을 받을 때까지 신고를 미루면서 가해자들과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충격으로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자살충동 등의 ‘성희롱 증후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사무총장은 “근로감독과 사업주에 대해 필수적으로 성희롱과 관련 사전 및 상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수훼리-승선권 판매 대행사, 수수료 ‘힘싸움’ 승객 400여명 표 재구입 등 피해

여수~제주를 잇는 여객선 선사와 승선권 판매 대행사간 다툼으로 승객 400여명이 표를 다시 구입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7월 여수~제주 노선에 취항한 1만6000여급 코델리아호의 선사인 (주)여수훼리와 승선권 판매 총판인 (주)코리아크루즈마케팅(이하 KCM)이 운임수수료를 놓고 ‘힘싸움’을 벌이면서 휴가철인 8월 초, 배를 예약한 승객들이 편도 4만원 가량의 탑승권을 재구매하거나 3주가 지났는데도 환불처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23일 여수훼리 선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4월 KCM과 승선권 총

판 계약을 맺고 일정 부분의 판매 수수료를 정했다. 하지만 8월 초 휴가 성수기가 다가오자 KCM은 투자를 미끼로 선사에 수수료율보다 낮은 특관 좌석 판매를 요청했다.

선사는 이 말을 믿고 특관가에 좌석을 넘겼지만 KCM은 정산이 덜 됐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7월 말 입금한 운임을 보내지 않았다. 화가 난 여수훼리 선사는 7월31일 KCM측에 탑승권 판매를 중지했으며 KCM이 판매한 탑승권을 무효처리 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표를 예약한 승객 400여명 중 일부가 여객터미널에서 표를 다시 사야했고, 일부 승객은

탑승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업체들은 책임을 미루면서 환불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사태해결을 위해 만난 두 회사 임원진은 급기야 폭행사태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두 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상대 회사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여수훼리 선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고객들이 겪은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위해 피해 승객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CM과는 통화가 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23일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90대 노인이 사망한 보성군 울어면 문양리 사고 현장에서 보성군청 직원과 119구조대원들이 포크레인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보성서 산사태... 주택 덮쳐 노인 사망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많은 비가 내린 보성에서 야산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가 발생, 90대 노인이 매몰돼 숨졌다.

23일 오후 2시20분께 보성군 울어면 문양리에서 마을 뒷편 녹차밭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마을 전도(66)씨의 주택을 덮쳐 같이 살던 노모(92)씨가 숨졌다.

옆씨와 함께 거주하던 아들 부부는

사고 당시 잠시 외출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 등 관계당국은 옆씨의 머리가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산사태 사실을 신고해 오후 3시30분께 출동했다. 119 구조대 등 100여 명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밀려든 토사를 치우며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1시간여만에 숨진 옆씨를 발견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산사태가 발생

하면서 50t에 달하는 토사가 전씨의 집 어머니 방을 덮쳤다”며 “가동불편한 옆씨가 미처 산사태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 지역에는 이날 오전 11시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중이 있으며 보성을 160mm, 보성 문면면 162mm(시간당 최대 47.5mm)의 장대비가 내렸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전남 소방공무원에 수당 120억 지급 판결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문방진)는 23일 김모(46)씨 등 전남도 전·현직 소방공무원 423명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전남도는 소방관 1인당 평균 3000만원씩 모두 120억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여수서 ‘가스 냄새’ 신고 소동

○23일 여수시 전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매캐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관계 당국이 한때 긴장.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와 소방서 등에 ‘가스냄새가 난다’는 제보 전화가 이어져 직원들이 여수시 선원동 시청사 인근까지 수차례 출동, 조사하는 소동.

○관계 당국은 “제보 전화 후 여수산단과 도시가스 시설을 확인을 했지만 특별한 가스누출 등은 감지해 내지 못했다”며 “우천으로 인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각종 냄새가 북풍풍을 타고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다이아몬드 감별기까지... ‘전문 도둑’

빈집털이 40대 영상

광주동부경찰청은 23일 휴대용 다이아몬드 감별기와 저울 등 특수 장비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빈집을 털어온 최모(42)씨에 대해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김모(57)씨의 주택 안방에 들어가 금반지와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180여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37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훔친 금품을 즉석에서 감별하기 위해 휴대용 다이아몬드 감별기, 0.01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저울 등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가 차량을 이용해 전국 곳곳을 다닌 점을 토대로 동봉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이러 대형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트레이러 대형 1,2종보통 2종 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